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홍) 성령 강림 대축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월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6월]



복음화 지향 :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시편 104(103),1ㄱ과 24ㄱ.29ㄴ-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ㄷ-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속가 미사 슬라이드 참고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온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6월 5일(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2 회 ♣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이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 단어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곧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시노드의 로고를 통해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와 빛으로 충만한 커다랗고 위엄 있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아래 로고 가장 왼쪽)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들은 성령을 암시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노드’(synod)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를 직접 보여 줍니다. (위 로고 가운데 왼쪽)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무가 그들에게 붙어 넣어 준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 15 명의 실루엣은 여러 세대와 출신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양한 밝은 색채들로 강조되며, 이는 기쁨의 표징입니다. 같은 바탕 위에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곧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평신도와 수도자, 부모와 부부와 독신자, 건강한 이와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주교와 수녀가 이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길을 열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가로글씨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문구가, 하느님 백성이 나아가는 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으며, 그 발걸음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위 로고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정점인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3”이라는 제목으로 끝을 맺습니다. (위 로고 가장 오른쪽)

|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 필사 |



‘성령 강림’ 장 푸케 작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22-23).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추기경 서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5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추기경에 서임되었습니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추기경이라는 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승진이나 영예가 아니라 보편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이번 추기경 임명을 통하여, 보편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자리입니다. 이번 추기경 임명을 통하여, 보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황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7년여정하다' 소식지 발행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지구를 위한 생태사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7년여정하다'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교우분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상 생활 속에서의 실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년여정하다'는 [의식의 개선], [생활의 개선], [제도의 개선] 3 가지 방법으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개선] 특별히 소식지와 영상물을 활용하셔서 지금 생태위기에 대한 공부(의식의 개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생태활동을 위한 영상물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7f8s_YO4itkWXYAf55ACK0OUmVtH3CBQ

[생활의 개선] 본당활동 페이지를 통해서 본당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게시했습니다.

□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홈페이지>본당활동

http://www.djeco.or.kr/bbs/sub3_1

[제도의 개선] 생태환경과 반대로 향하는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도 진행중입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 추천 영상 >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성령 강림 대축일은 어떤 축일인가요?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 설립 기념일'이면서 선교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은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2022년 환경의 날 담화

2022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님께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라는 제목의 환경의 날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과 희망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생태적 회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자고 하셨습니다. [담화 전문 링크](#)

| 성령 강림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9
수신거부로 쓸데없는 우편물 줄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28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종이컵 2개 기준)
→ 0.2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환경의 날 담화 (요약)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올해 환경의 날 담화를 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님과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꿀팁가이드]
레위기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이걸 모르고 읽어서 힘들었던 겁니다

세계주교시노드 2021-2023
교육영상 - 제 2 편

시노드란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모든 이가 초대된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5월 22일	성인 35 아이 17	5월 29일	성인 27 아이 10
--------	-------------	--------	-------------

□ **우리들의 정성 (5월 28일(토)~6월 3일(금))**

구민식	권요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허준				교무금 : \$460 (9 가정) / 봉헌금 : \$186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6월 12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5일) 마태오반 → (12일) 루카반 → (19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12일) 요한반 → (26일) 루카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천주 윌리엄(8일) 형제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27>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53>

